

지역 이모저모

경주, 원전 전문가들 모여 글로벌 협력 미래 열다

경남도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급 필요

경남도는 사천공항 이용 환경 개선 및 국제공항 승급 등 기능 재편에 관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사천공항 이용 실태, 공항 접근성, 앞으로 국제선 수요 등에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사천공항 국제공항 승급에 대해 대다수 도민(74.4%)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국제공항 승급이 경남에 긍정적 영향(79.2%)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도민들은 사천공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선 사항으로 ▲항공편 운항 횟수 확대(53.5%) ▲국제선 도입(23.6%) ▲주차장 및 교통편 개선(15.6%)과 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9.1%)이 시급하다는도민들의요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남=이도식 기자

해남군

먹거리지수 2년 연속 최우수

전남 해남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한 '2024 지역먹거리 지수' 결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해남군은 2022년 우수지자체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역먹거리 지수 평가는 먹거리 정책의 지역 간 격차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먹거리 선순환 체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19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평가는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남군은 먹거리 계획 추진을 위한 지자체장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갖고 착실하게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온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 Dream Dock' 1호점 개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일 백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해양산업·문화 학습 공간 '해양 Dream Dock' 1호점을 개소했다고 밝혔다. '해양 Dream Dock'이라는 이름은 선박을 건조하는 공간인 'Dock'에서 착안했다. 세계를 누비는 선박을 만들고 바다로 내보내는 Dock처럼 해양에 대한 꿈을 만드는 장소라는 의미이다. 1호점 설치 장소는 공모를 통해 백양종합사회복지관으로 결정했다.

해양 Dream Dock은 문화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단순한 생계적 지원을 넘어 지식을 전달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추진됐다.

지역아동센터 내 해양문화·산업 등 해양 도서 위주의 독서 공간과 해양산업·문화 교육 환경을 조성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NES 2024' 5일까지 진행 '원자력 사업의 세계화' 주제 개최 전시회·수출상담회 등 기회 제공

국내 유일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전시회인 'NES 2024'가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공동주관으로 '국경없는 에너지: 원자력 사업의 세계화(Borderless Energy: Globalizing Nuclear Business)'를 주제로 개최된다.

행사는 ▲전시회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산업시찰 ▲채용설명회 등으로 나뉘어 펼쳐진다.

전시회는 해외 27개사 등을 포함해 총 75개사, 160개 전시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원전 정비 및 안전, 원전 건설, 원전 발전 기자재, 원전 해체, 원전 기관 등 원자력 전 분야에 걸쳐 대표 기업들이 참가한다.



국내 유일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전시회인 'NES 2024'가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3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수출상담회는 체코 CEZ, 폴란드 P EJ, 캐나다 AtkinRealis, 튀르키예 I C Ictas, TUNAS 등 16개국, 30개사 규모의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B2B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글로벌 원자력 전문가들 간 교류를 위한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도 개최된다.

행사 둘째 날인 4일에는 트레비치

시 시장단과 튀르키예 신규원전을 위한 국영기업 TUNAS 사장단 등 국내 원전 수출 희망 국가에서 원자력 안전 및 지역주민 수용성을 주제로 '세계 원전도시서밋(WNCS: World Nuclear Cities Summit)'이 열린다.

5일에는 신항 원자력 시장으로 평가받는 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국제 컨퍼런스인 AN

BP(Asia Nuclear Business Platform)도 동시 개최된다.

행사의 공동주관사인 KNA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글로벌 원자력 동향, 한미 원자력 협력 라운드 테이블, 세계 SMR 개발 현황, 기후변화와 원전 등 3일간 다양한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채용설명회는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한 인력양성 세미나와 함께 한전,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가해 기업별 맞춤형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K-원전의 우수성이 전 세계로 널리 알려져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될기를 바란다"라며 "경주시도 SMR 제조, 소부장 산업육성 및 집적화로 미래 원전 수출시장 선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경북)=최지웅 기자 asdadx@metroseoul.co.kr

부산 창투원, 기술 창업미래 위한 첫걸음

다양한 창업자층 위한 맞춤형 지원

부산시는 재단법인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창투원)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지난 3일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총회는 시청 회의실에서 시 행정부시장, 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 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투원 설립 취지문 채택과 정관을 심의·의결했다.

발기인 총회는 시의회,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투원 설립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기술 창업을 비롯해 새롭게 생겨나는 융합 산업 등 다양한 창



부산시가 3일 오전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기술창업투자원(창투원) 발기인 총회를 열고 창투원의 공식적인 출범 소식을 알렸다.

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창투원의 수요자층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고, 시는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창투원을 창업 사령탑으로 제대로 설립할 예정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금융인재 육성 위한 교육 혁신 본격화

부산교육청, 특화 자사고 설립 추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3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시, 한국거래소, BNK금융지주와 '부산 금융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형 사립고 설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금융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중심지 부산이 차세대 금융인재의 산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네 기관은 협약 체결에 따라 경제·금융 특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지원·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목표에 맞는 교육 실현, 부산시는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 지원에 협력할 방침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제 금융중심지 위상을 더 높일 인재 육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을 통한 부산 지역 교육력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 명촌공영차고지 조성 공사 준공

154억 들여 2만여㎡ 조성

울산시는 4일 오전 10시 북구 명촌동 명촌공영차고지에서 '명촌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김종섭 울산시장 직무대리, 김영곤 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나윤호 경동도시가스 사장, 김세호 코하이젠 사장 등 관련 기관 및 기업·운송

업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내빈 소개, 사업 경과보고, 색줄 자르기,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명촌공영차고지는 태화강역 환승센터 조성에 따라 태화강역에 있던 시내버스 회차지를 북구명촌동 433-11번지로 확장 이전한 시설이다.

총사업비 154억원이 투입됐으며 부지 면적 2만 2804㎡, 건축 연면적 2415㎡ 규모로 조성됐다.

/울산=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진주, 노인 일자리 참여자 6939명 모집

이달 16일까지 신청 가능

진주시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280억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395명 늘어난 6939명 규모로 모집되며 이는 진주시 노인인구 10%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지역 사회 환경 개선 봉사,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우체국 업무 지원 등 노인역량활용사업 ▲참기름 및 누룽지 제조, 실버카페 등 공동체사업 ▲중소기업 등 수요처로 구직자를 연계하는 취업 지원 분야로 나누어 모집된다.

신청 기준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수급자 중 기준 충족 대상자이며 노인역량 활용사업은 65세 이상,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 지원 분야는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뉴스테이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미국무 "韓 계엄 해제 환영... 평화적 해결 기대" /사진 뉴시스 ▲ 주요 동맹국들, '계엄 선포' 우려 나타내

▲ 데이시바 "韓 계엄, 주시... 방한, 정해진 것 없어" ▲ 한미, 핵우산 강화 회의·도상연습 연 기... 계엄 여파인 듯



▲ 中 "서울의 겨울... 韓사회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 ▲ 트럼프, '성비위 의혹' 국방장관 지명자 교체 검토 /사진 뉴시스